

<b>보도자료</b>	보도일시	인터넷 기사[2015. 10. 30(금) 06:00부터 가능] 신문 기사[2015. 10. 30.(금) 조간부터 가능]
	담당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044-287-6650, leeky@kli.re.kr) 최대우 KLI 기획조정팀 팀장 (044-287-6020, dwchoi@kli.re.kr)
	배포일시	2015. 10. 29.(목), 15:0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배포됩니다.

## 1~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은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1~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올 해는 7개 주제 20편의 논문과 3개의 기획세션 주제 6편의 논문, 그리고 대학원생 우수논문 3편 등 총 29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그 중 대표적인 4편의 논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구체적인 학술대회 일정은 첨부한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KLIPS란?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은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이 후 2015년 현재 18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패널조사입니다.

동 조사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실태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입니다

### ◆ 보도자료 발표논문 제목

1. 부모의 남아선호,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
2. 일중독 측정과 결정 요인
3.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
4. 대학진학에서 가족소득 역할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부모의 남아선호,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에스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구 내 남녀 불평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지속성 또는 느린 변화를 제시함
  - 부모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자녀에게 이전됨에 따라 가구 내 남녀 불평등 개선의 속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됨
- 본 연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불균등한 성비로 인해 결혼 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가사노동 배분의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에는 가구 내 남녀 불평등의 지속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가구 내 남녀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가구 내 불균등한 자원 배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간사용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노동패널 17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세대 간 이전됨으로써 가구 내 불균등한 가사노동배분을 가져오는 지를 살펴봄

- 부모의 성역할 태도는 자녀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남아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에서는 남아선호가 약하게 나타난 지역에 비해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남아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에서 태어난 개인은 남아선호가 덜 강한 지역에서 태어난 개인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 확률이 높고, 이는 가사노동배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별 남아선호의 정도는 1990년대 초·중반의 출생성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성감별 기술의 보급으로 성감별 낙태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 초·중반에 남아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일수록 출생성비가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출생지의 1991년-94년 출생성비(문화적 배경)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설문으로 측정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1) 자녀를 돌보는 시간 2) 자녀 외에 다른 가족을 돌보는 시간 3) 집안일에 쓰는 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된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
-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 자녀를 돌보거나 2) 자녀 외에 다른 가족을 돌보는 시간보다 3) 집안일에 쓰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남
- 1991-94년 출생성비가 115 (정상범위 출생성비:103-107)로 나타난 지역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출생성비가 105인 지역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 하루에 34분 추가적으로 가사노동에 시간을 들임

- 실제 1990년에 관측된 출생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북에서 태어난 남성(1990년 출생성비: 131)과 결혼한 여성은 인천(1990년 출생성비: 112)에서 태어난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 하루 약 65분을 더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8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한정할 경우,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시간 및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씀
  - 또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성역할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가깝게 응답할수록 늘어남
  - 반면 아내 본인의 문화적 배경 및 주관적 성역할 인식은 아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편의 문화적 배경 및 주관적 성역할 인식 또한 남편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연구결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구 내 남녀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성비가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정상성비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따라서 가구 내 남녀불평등의 개선은 과거보다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일중독 측정과 결정 요인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이 일중독 측정 도구로서 갖는 신뢰성을 검토하고, 일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했음.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일중독 관련 문항들이 조사되어, 일중독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전체 취업자의 일중독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Aziz et al.(2013)의 일중독 문항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한 일중독 문항들은 일중독 측정 도구로서 수용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 것을 확인함
- Aziz et al.(2013)의 일중독 문항들은 일중독을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심각한 일강박을 보이는 중독으로 정의하면서 일강박(work drive)과 일가정 양립 갈등(work-life imbalance)를 강조하고 있음.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불쾌함, 금단 증상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됨.
- 일중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일중독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특성들을 반영하여 일중독을 측정
-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의 주된 특성들 가운데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중이 높은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로 29개 문항들 가운데 유일하게 3.03으로 보통 수준을 넘어섰음.
- 일가정 갈등, 업무 완벽주의, 일중독 느낌에 대한 자기보고 등과 관련한 일중독 문항들에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 항목 가운데 ‘직장 일 때문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 때문에 항상 너무 피곤해서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완벽주의 관련 항목 가운데는 ‘업무를 안하고 있을 때는 조바심이 난다’, ‘업무를 안하면 지루하고 안절부절한 느낌이 든다’,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이 잘 되었는지 자주 확인한다’, ‘나는 때때로 업무목표나 업무 성과에 집착한다’, 일중독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 문항들에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6.7-7.2%가 일중독자로 판별되었음.

- 일중독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결과의 민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3가지의 일중독 변수를 사용하였음. 일중독1은 조사된 일중독 29개 항목 응답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문항갯수인 29개로 나누어 평균 5점 만점의 척도로 환산하였다. 이 점수가 3을 초과하는 사람, 즉 일중독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을 일중독자로 정의. 일중독2는 일중독 조사항목들 가운데 ‘나 자신이 일에 중독된 느낌이다’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자를 일중독자로 정의. 스스로 일중독자라는 인식에 기반한 정의와 다양한 일중독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정의했을 때 분석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함. 일중독3은 변별도와 타당도 검사에서 일중독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일중독1을 도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중독자를 정의함.

- 일중독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남성일수록,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40대일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일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였음. 조직몰입도가 낮은 집단, 직무 열정이 낮은 집단, 일의 즐거운 정도가 낮은 집단의 일중독자 비중이 높았음.
-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요인들이 일중독자가 될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40-60시간인 사람보다 3.6%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았음. 정규 근로시간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8.4% 증가했음. 상용직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일중독자가 될 확률은 4.1% 증가했음.
- 우리나라에서 일중독자는 일중독 상태가 아닌 사람과 비교할 때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았음. 일중독자 가운데 대략 4명 중의 3명은 즐겁고 열정에서 비롯하여 일에 몰입한 상태가 아님.
- 이러한 일중독 실태 조사 결과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경험 차원에서 의심하고 있던 일중독 위험 인자들을 상당부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임.
-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일중독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중독과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17.9%에 해당하는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함.
- 한편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일중독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은 일중독 문제가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적 과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함. 일용직은 근로시간 길이에 상관없이 불안정한 일거리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조바심이나 불안감을 가지는 금단 증상을 보일 수 있음. 자영업자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일몰입과 일강박에 빠져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의향이 낮은 집단이기도 함.

##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는 10차년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동일한 비정규직 판별설문 조사 시작
  - 본 연구에서는 경활과 비교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추이가 비슷한지 다각도로 검토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따라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하여 세 가지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비정규직으로 간주함
- 이 외에도 동일한 개인을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살려 비정규직의 경제활동상태변화를 분석한 결과
  - 12차년도(2009년)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의 25.8%가 다음해인 13차년도(2010년)에 정규직이 되었으며, 5년 뒤인 17차년도(2014년)에도 불과 28.7%만이 정규직으로 이행.
  - 동일 기업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남아 있는 비율은 5년이 경과하면 11.5% 밖에 되지 않음
    - 이는 이직과 계약 해지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의 발전과정이란 이직을 동반하는 과정임을 시사
    - 비정규직 고용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도록 촉진하는 정책과 동시에 직무 중 일자리 탐색을 지원할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성 시사



<표 1> 비표본오차 교정 전후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13차					17차				
		비표본오차 교정 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계
12차	비정규직	57.4	25.8	2.8	14.0	100.0	45.9	28.7	6.8	18.6	100.0
	정규직	11.3	80.5	1.5	6.7	100.0	14.6	66.5	6.3	12.6	100.0
	자영업	2.1	2.0	89.2	6.7	100.0	7.7	7.2	72.0	13.1	100.0
	미취업	5.9	5.6	2.8	85.8	100.0	12.2	12.0	5.1	70.8	100.0
	계	13.0	27.1	17.3	42.6	100.0	16.3	27.9	17.9	37.8	100.0
		비표본오차 교정 후									
	비정규직	60.5	22.2	2.9	14.4	100.0	47.0	26.8	7.1	19.2	100.0
	정규직	8.5	83.4	1.5	6.6	100.0	12.9	68.5	6.2	12.4	100.0
	자영업	2.1	2.0	89.2	6.7	100.0	7.7	7.2	72.0	13.1	100.0
	미취업	5.9	5.6	2.8	85.8	100.0	12.2	12.0	5.1	70.8	100.0
	계	12.5	27.6	17.3	42.6	100.0	15.8	28.4	17.9	37.8	100.0
		같은 기업 내 이동만									
비정규직	53.2	16.7				25.7	11.5				
정규직	5.5	76.7				4.5	52.1				

주: 같은 기업 내 이동은 교정 후 수치임.

#### □ 추가로 25-49세 남성 가구주를 근로빈곤 여부로 나눠 이행 검토

- 근로빈곤은 일을 함에도 가난한 가구를 의미. 가구소득 중위 미만 60%로 정의
- 분석결과 12차 빈곤가구에 있던 25-49세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33.5%는 여전히 빈곤 가구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었으며, 5.5%는 실직했고, 7.8%는 빈곤 상태이지만 정규직으로 이동
- 반면, 12차 빈곤가구 25-49세 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20.4%는 빈곤 상태에 머무르면서 정규직으로 있었지만, 57.9%는 비빈곤-정규직으로 변화
- 이를 보면, 빈곤 가구에 있는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한 25-49세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빈곤/ 실직 위험을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1년 경과 후  $33.5+7.8+5.5=46.7\%$ 가 여전히 빈곤/ 실직 위험에 빠져 있었음

- 5년 경과 후인 17차 경제활동 상태를 보더라도 빈곤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빈곤 비정규직+빈곤 정규직+미취업= 33.9%가 빈곤/ 실직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빈곤 정규직 남성은 5년 뒤 4.4+8.2+1.8=14.4%만이 빈곤/실직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 이를 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한 25-49세 연령대에 있어도 빈곤/ 실직 위험 탈출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의 경제활동상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의 정책과제로 중요함을 시사

&lt;표 2&gt; 가구 빈곤 여부와 연결해 분석한 경제활동 상태 이동

(단위: %)

		13차						
		빈곤-비정규직	빈곤-정규직	비빈곤-비정규직	비빈곤-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전체
12차	빈곤-비정규직	33.5	7.8	32.8	16.6	3.7	5.5	100.0
	빈곤-정규직	2.1	20.4	9.5	57.9	2.7	7.6	100.0
	비빈곤-비정규직	5.1	0.5	51.1	35.9	4.1	3.3	100.0
	비빈곤-정규직	0.6	1.4	6.8	87.3	1.8	2.1	100.0
	자영업	0.6	0.6	2.2	2.7	91.1	2.8	100.0
	미취업	13.4	13.9	5.6	16.1	20.6	30.4	100.0
	전체	3.3	3.6	12.0	51.9	24.1	5.1	100.0
		17차						
		빈곤-비정규직	빈곤-정규직	비빈곤-비정규직	비빈곤-정규직	자영업	미취업	전체
	빈곤-비정규직	14.1	8.5	34.7	24.4	7.0	11.3	100.0
	빈곤-정규직	4.4	8.2	13.2	62.9	9.5	1.8	100.0
	비빈곤-비정규직	5.1	4.0	37.6	40.2	11.5	1.6	100.0
	비빈곤-정규직	1.2	2.1	8.1	79.1	7.5	2.0	100.0
	자영업	0.9	1.7	5.3	10.3	78.9	3.0	100.0
	미취업	10.1	6.2	21.4	24.4	14.6	23.4	100.0
	전체	2.9	3.2	13.2	50.8	25.9	4.1	100.0

## 대학진학에서 가족소득 역할의 변화에 관한 연구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변금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한국의 교육불평등은 완화되었는가?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 이상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 대학 교육이 보편화 됨. 이는 가족소득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가 감소하였을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등록금 상승 등 높은 교육비용과 소득격차의 확대는 가구소득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를 커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 ☐ 본 연구는 대학교육 기회가 확대된 최근 10년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함

-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1999년과 2009년 시점에 만15~18세였던 아동 1,504명(99코호트 809명, 09코호트 695명)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만 20세 시점 전문대 이상 대학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의 영향을 확인하고,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이용해 1999년과 2009년의 가구소득 영향의 차이 중 각 집단의 일반특성 변화로 인한 차이를 분리하여, 가구소득이 대학진학 여부에 미친 영향력 변화를 명료하게 확인함.

### ☐ 소득최하위인 소득1분위 가구 아동의 전문대 진학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가장 작게 증가함

- 1999년 코호트와 2009년 코호트의 소득분위별 대학진학률을 단순 비교한 결과, 소득최하위 집단인 소득1분위 아동의 전문대 진학률은 11.9%포인트 증가함. 이는 소득 2~4분위 아동의 전문대 진학률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임.
- 소득1분위 아동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9%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분위 중 가장 작은 증가폭임.
- 전문대 진학률의 1분위와 4분위 격차는 -2.8%포인트에서 -19.2%포인트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의 1분위와 4분위의 격차는 31.7%포인트에서 39.1%포인트로 벌어짐.

<표 1> 소득 4분위별 대학진학률 코호트간 단순비교(% , %p)

4분위	전문대			4년제		
	99코호트(A)	09코호트(B)	변화(B-A)	99코호트(A)	09코호트(B)	변화(B-A)
1분위	28.1	40.0	<b>11.9</b>	32.0	36.6	<b>4.6</b>
2분위	38.1	33.5	-4.6	36.6	52.6	16.0
3분위	34.2	30.5	-3.7	52.5	64.4	11.9
4분위	25.3	20.8	<b>-4.5</b>	63.7	75.7	<b>12.0</b>
평균	31.4	31.2	-0.2	46.2	57.3	11.0
1-4분위 차이	<b>-2.8</b>	<b>-19.2</b>		<b>31.7</b>	<b>39.1</b>	

□ 가구소득이 4년제 대학진학에 미친 영향은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됨.

- 1999년 코호트는 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6%포인트 증가하였으나, 2009년 코호트는 3.4%포인트 증가하였음.
- 1999년 코호트는 최상위 소득분위인 4분위 가구에 속한 아동은 최하위 분위인 1분위 가구의 아동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14.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30.2%포인트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한부모 여부 등 가구소득 이외의 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가구소득의 영향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요인분해를 이용해 코호트의 일반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리하여도 가구소득이 4년제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남.

<표 2>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선형확률모형 분석 결과(4년제 대학진학, %p)

		99코호트	09코호트
월소득 100만원 증가시 대학진학률		2.6	3.4
1분위 기준 대학진학률	2분위	-1.0	14.2
	3분위	12.2	22.4
	4분위	14.7	30.2

□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수준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대학진학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함. 대학등록금의 상승 등 높은 교육비용과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해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제임.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이 결정되는 교육계층화가 심화되면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